

	<b>보도참고자료</b>	
	배포일시	2019. 7. 3.(수) / 총 1매(본문 1)
국토교통부	담당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철도투자개발과장 나진향, 서기관 백승록</li> <li>• ☎ (044) 201-3988, 3982</li> </ul>
보도일시	즉시 보도 가능합니다.	

## GTX A노선 공사 과정에서 지하 수직 파이프관 저촉이 없도록 안전하게 추진하겠습니다.

- GTX A노선은 기본적으로 도로 등을 따라 설계하고, 불가피한 경우 사유지 등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어 수직 파이프관 저촉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.
  - A노선 실시설계를 위한 지장물 조사 과정에서, 지하수 관정 등 수직 파이프관 현황을 지자체로부터 받아 설계에 반영하였습니다.
- 아울러, 정부는 관련구간 시공 전에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지열 파이프관 등 현황을 정확히 재조사할 계획입니다.
  - 누락된 수직 파이프관이 있는지를 추가로 확인하여 공사과정에서 수직 파이프관 저촉 없이 안전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.
- \* 지열 파이프관(지열냉난방시설 공사로 지하수를 뽑아 쓰지 않는 공사): 지하수법에 의한 “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” 대상으로 지자체가 정보 보유 중

### < 관련 보도내용 (중앙일보, '19. 7.3(수) >

- ◆ 정부도 모르는 땅속 폭탄...GTX 뚫다 냉난방 끊길 판
  - 대심도 지하개발하다 지열 파이프 등을 훼손하여 건물의 냉·난방을 끊을 위험
  - 정부·지자체가 지하 수직 파이프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아 사고발생 위험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철도 투자개발과 백승록 서기관(☎ 044-201-3982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